

# 2009년 유네스코 세계고등교육회의의 참가기

강영순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과장

지난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유네스코 본부가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제2차 유네스코 세계고등교육회의가 열렸다. 1998년 제1차 회의가 열린 이래 약 11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된 것으로 유네스코가 고등교육 분야에서 주최하는 가장 큰 행사에 속한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사회변화와 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연구의 새로운 동력'으로 급변하는 전 세계적 환경 속에서 국가발전과 개인행복을 위한 고등교육의 활로를 새로이 모색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을 두었다.

이번 고등교육회의에는 193개 유네스코 회원국 대표단 및 고등교육관련 국제단체 대표 등 약 1,000명이 참석하였으며, 장관급 참석자는 약 60명 정도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교육과학기술부 임상현 학술연구정책실장, 박종렬 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진동섭 한국교육개발원장, 강영순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과장, 박성하 대학원지원과 사무관, 유현숙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연구실장, 주 유네스코 대표부 김천홍 과장

등으로 구성되었다.

7월 5일 오후에 개최된 개회식에서는 주요 인사들의 개회사가 있었다. Angel Gurria OECD 사무총장은 오늘날 고등교육에 있어 접근성 및 기회균등의 보장, 고등교육기관의 자율성 확보, 글로벌화, 고등교육의 질 관리 등을 강조하였다. Benita Ferrero-Waldner EU 대외관계정책 집행위원은 경제위기에 따른 고등교육의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국가 간 상호교류가 중요하다며 유네스코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촉구하였다. Dame Pearlette Louisy Saint Lucia 총독은 자본보다 지식이 국가발전에 더욱 중요하며, 이에 따른 처방으로서의 고등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역설하였다. Danilo Turk 슬로베니아 대통령은 고등교육 분야에 있어 학문적 자유의 보장, 엄격한 질 관리,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번 개회사 중 가장 관심을 끈 부분은 두 가지로 보

였다. 하나는 John Biden 미국 부통령 부인인 Jill Biden 여사가 커뮤니티칼리지에서 제2외국어로서의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자신의 이력을 소개하며, 미국의 커뮤니티칼리지의 장점 등을 장황하게 소개했다는 점이다. 커뮤니티칼리지가 직장인 교육기회의 확대, 이민자 교육의 실시 등으로 미국 고등교육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도 그 역할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현직 부통령의 부인이 비교적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칼리지에서 가르치고 있는 자신의 이력을 당당히 소개하며, 그 역할의 확대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다른 하나는 Zi Zhou 중국 교육부장관이 행한 연설이었다. 그는 중국이 현재 사립대학을 많이 증설하는 등 고등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질 관리를 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임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고등교육 분야의 국제협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 국가에 대해 다각도의 지원을 고려하고 있음을 당당히 피력하였다. 그간 자국의 급속한 발전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에서 벗어나 소외된 국가들에 대해서 도움을 내밀겠다고 적극 제안하는 모습에서 세계무대에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였다.

7월 6일 열린 본 회의에서 Georges Haddad 유네스코 고등교육국장은 직업교육 및 고등교육의 질 관리 등 점차 다양화되는 고등교육의 새로운 수요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고등교육의 새로운 과제로 고등교육 구조의 다양화, 공익추구를 위한 고등교육, 기업가정신의 고등교육, 연구와 평생교육 등이 조합된 새로운 모델의 고등교육 등을 나열하였다. 이번 본 회의에 앞서 전 세계 6개 지역에서 개최된 예비회의 결과 발표에서는 고등교육 발전에 대해 공통적으로 고

민하는 몇 가지 경향을 읽을 수 있었다. 고등교육의 접근성 제고로 기회균등 보장, 재정확충, 고등교육의 질 향상, 글로벌화 등이다.

Philip Altbach 미국 국제고등교육연구소장은 고등교육의 글로벌 트렌드를 크게 두 가지, 고등교육의 대중화와 글로벌화로 보았다. 그는 경제위기로 인해 대학의 재정위기가 심화되면서 사립대학의 비율이 늘어나는 고등교육의 민영화(Privatization)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현상 속에서 고등교육의 본래 가치 중 하나인 공익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를 풀어야 할 숙제로 제시하였다. 주제별로 동시 세션이 열렸는데, Konrad Osterwalder UN대학 학장은 고등교육의 국제화는 정책결정자, 대학행정가, 학생 등 각 이해 집단별로 각기 다른 대처방안을 필요로 하며, 동 대학 설립 후 1997~2004년간 학생의 국제적 이동이 41% 정도 증가하였으며, 국제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Molly Broad 미국교육연합 회장은 고등교육의 기회균등 보장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학생을 지원하고 고등교육기관을 다원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하며 고등교육기관의 유형을 2년제, 4년제, 연구중심대학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Jose Cago 포르투갈 고등교육과학장관은 고등교육 분야의 학습과 연구의 질을 개선하고 혁신을 이루기 위해 고등교육 질 관리 전문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OECD, UNESCO의 질 보장(Quality Assurance) 가이드라인은 중요한 지침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고등교육회의의 주요 행사는 아프리카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등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주제로 열린 아프리카 라운드이었다. 아프리카 라운드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자국 고등교육 발전 사례를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 임상현 학술연구정책실장은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고등교육의 보편화를 빠른 속도로 달성하였으며, 이와 같은 성과는 우수한 인력을 적시에 양성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한다는 정부의 전략적 경제·교육정책과 더불어 한국사회의 교육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소개하였다. 우리는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향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고등교육기관들의 자율과 책임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한국의 경험은 아프리카 국가 등 개도국들의 고등교육 발전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보며, 아프리카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협력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발표가 있는 후에 열린 회의, 특히 마지막 날 장관 패널 토론에서 일부 국가들은 한국의 고등교육 발전에 대해 언급하며 아프리카 국가들이 본받아야 할 성공적인 사례로 관심을 표명하였다.

7월 7일 개최된 특별 세션은 4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고등교육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는 대학이 사회계층 간 불평등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 및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데 주력할 것을 요구하였다. 저개발국들에 있어서는 두뇌유출을 방지하고 학생들 간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국가 간 지식과 경험의 적극적인 교류를 위해 유네스코와 회원국 간 새로운 형태의 국제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대학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학이 이에 적극 대응하도록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며, 대학이 가시적이며 실용적인 비전과 장기적인 사회참여 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고등교육 분야의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대학과 기업, 정부, 시민단체 등이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학의 강한 리더십과 헌신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되었다. 대학이 변화하는 시대에 새로운 사회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역사회의 요구나 전 세계적인 발전 어젠다(agenda)와 연계하는 등의 사회 각 기관과 연계한 사회발전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7월 8일 오전에 열린 장관 패널 토론은 마지막 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에서 발언을 신청하여 발표시간 제한을 엄격하게 하는 등 매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각국별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으나 공통 지적 사항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이유로 고등교육 예산을 축소하지 말 것과 고등교육의 국제화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이므로 국가 간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는 점이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고등교육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서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할 것과 고등교육은 서비스가 아니라 공공선(Public Good)으로 보아 국가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7월 8일 오후, 4일간의 회의를 정리하고 회원국 및 유네스코의 향후 행동방향을 제시한 코뮈니케를 채택하고 폐회하였다. 코뮈니케의 핵심 요지는 앞선 회의에

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고등교육이 당면한 문제들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고등교육 발전에 대해 각국 정부와 대학, 관련기관들의 노력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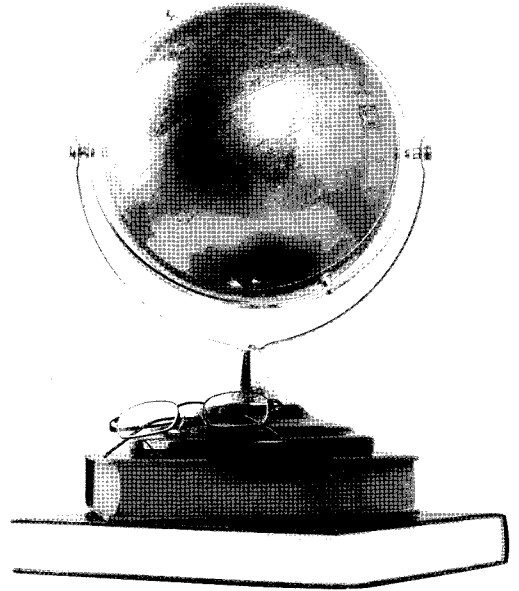
이번 회의는 1998년 제1차 회의에 비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특히, 아프리카의 고등교육을 핵심 주제로 부각시켜 주요 공여국들로부터 지원 약속을 얻어내려 한 시도는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세계고등교육회의의 결과 채택된 코뮌니케가 고등교육의 모든 이슈를 다루면서, 구체적이고 실행할 수 있는 행동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금번 대회를 통해 유네스코가 얻어낸 성과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한편, 아프리카 세션에서 우리 고등교육의 발전경험을 소개함으로써 많은 발표자들이 우리 사례를 인용하는 등 상당한 홍보효과를 거두며 개도국들의 역할모델로서 상당히 부각되었다. 우리도 이제 세계 13위 규모에 이르는 경제대국으로서 우리의 강점 분야인 교육에 있어 아프리카 등 개도국들을 적극 도와주어야 할 위치에 있으며, 이를 위해 협력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자원 확보 등의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

#### 필 / 자 / 소 / 개

##### 강영순

한양대 행정학과, 한양대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를 취득하고 미국 버클리대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교육부에서 국제교육협력과장, 법무담당관, 정책상황팀장, 대학 구조개혁팀장, 유아교육지원과장 등을 거쳤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  
사회변화와 발전을 위한 고등교육 /  
연구의 새로운 동력

유네스코 세계고등교육회의

”